

대중매체에 나타난 패럴림픽에 대한 분석 및 발전방향

이창희, 박범영*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Analysi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Paralympics in Mass Media

Chang-Hee Lee, Bum-Young Park*
Division of Sport Science, H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한 제8회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대회부터 다가올 제12회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최를 중심으로 보도되는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의 유형을 분석해 봄으로서 현재의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도와 패럴림픽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첫째, 방송/통신 분야가 21%로 제일 많았으며 둘째, 지적장애가 지체장애보다 2배 이상 보도되었다. 이는 단순한 휠체어를 상징하는 신체적 장애인의 참여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의 장애유형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대중매체의 양적증가의 흐름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보도와 분석을 통하여 패럴림픽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장애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로 보고 긍정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융합, 대중매체, 장애인올림픽, 서울 패럴림픽, 평창 패럴림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xts of the mass media reported mainly on the hosting of the Seoul Ferrules and the upcoming Pyeongchang Paralympics in Korea, and to present the interest of the current paralympic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paralympics. First, the broadcasting / communication sector accounted for 21%, and second, the intellectual disability was more than twice as much as the mental retardation.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positive and continuous reporting and analysis will be needed through the quantitative growth of mass media.

Key Words : Convergence, mass media, Paralympic, Seoul Paralympics, Pyeongchang Paralympics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시작이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에서 진행된 최초 성화 봉송이 30년 만에 대한민국 우리 땅에서 다시 불을 밝히게 된 것이다[1]. 현재 대한민국은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대규모 선수단을 지속적으로 패럴림픽에 파견하고 있으며 1996년

아틀란타 PG 12위, 1998년 서울 PG 7위, 2000년 시드니 PG 9위, 2004년 아테네 PG 16위, 2008년 베이징 PG 13위, 2012년 런던 PG 12위, 2016년 리우 PG 20위, 서울 PG 이후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장애인스포츠 우수성을 널리 세계에 알리고 있다[2].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고 이를 계기로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가 주축이 되어 꾸준히 패럴림픽으로 지속,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3].

*Corresponding Author : Bum-Young Park(world32001@hanyang.ac.kr)

Received February 5, 2018
Accepted June 20, 2018

Revised June 7, 2018
Published June 28, 2018

대한민국은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현재 2018년 제12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엘리트 스포츠의 비인기 종목과 마찬가지로 국제무대에서 기적 같은 성적을 내었을 때 국민들의 ‘반짝 관심’을 받게 되는 게 사실이다. 늘 ‘반짝 관심’속에 열린 패럴림픽은 장애인 그들만의 체육대회로 인식되었으며[4], 패럴림픽에 국가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비장애인 엘리트 스포츠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의 현재 모습이다[5,6]. 패럴림픽이 장애인 그들만의 ‘소외’라는 체육대회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이 패럴림픽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7.8%가 장애가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오해’와 ‘편견’을 느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72.8%의 부정적인 통계 결과가 나왔다[7]. 이런 수치의 결과를 볼 때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현재 다가올 2018년 제12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으로 이어져오면서 과거와 현재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난 패럴림픽에 대한 분석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패럴림픽의 분석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장애인 사회의 특징 및 장애인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8]. 또한 매일 설 새 없이 쏟아지는 대중매체의 광범위한 보도량을 통해 패럴림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패럴림픽의 인식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기사를 통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인식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9,10]. 그만큼 대중매체에서 큰 범위를 차지하는 분야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한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과 다가올 2018년 제12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최를 중심으로 보도되는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과거와 현재 패럴림픽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도의 확산을 살펴보고 패럴림픽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패럴림픽 특성상 참가 종목의 장애유형이 등급 분류화

되어 있어 별도의 장애 유형별 대중매체 경향 분석을 하지 않아 일반적인 관점에서 인식을 분석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체계적인 패럴림픽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에 나타난 패럴림픽에 포함된 장애유형으로 나누어 어떠한 유형의 참여가 과거와 현재에 달라지고 있는지 이에 따라 패럴림픽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비장애인들이 패럴림픽을 장애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로 보고 긍정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 그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현대사회는 TV와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원의 자료수집은 국내 영향력이 높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자료수집 대상은 네이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패럴림픽 기사 내용 중 88 서울 장애인 올림픽, 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키워드이며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한민국 대중매체에 나타난 패럴림픽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인식에 대한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9]. 자료 수집은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을 시작으로 2018년 제12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최 전까지로 제한하였으며 연도별 10년 단위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를 포함한 특수체육 전공자 3인과 대중매체의 보도자료 분석 경험이 있는 스포츠 마케팅 전공자 3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특수체육 전공자 3인, 스포츠 마케팅 전공자 3인의 관련 전공자 총 6인이 참석한 전문가 회의 후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할 자료를 결정하였다.

2.2 분석변인의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chantz와 Gilbert의 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장애유형별 변인으로 분류하였다[12].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를 대상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중매체에 나타난 대한민국 패럴림픽에 대한 분석은 어떠한가?
2. 대중매체에 나타난 장애유형별에 따른 대한민국 패럴림픽에 대한 분석은 어떠한가?
3. 과거와 현재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난 분석 변화를 통해 패럴림픽의 발전방향은 어떠한가?

2.3 자료 분석의 타당도

본 연구는 특수체육 전공자 3인과 스포츠 마케팅 전공자 3인이 1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장애유형별로 분류하였다. 1차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평가자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Intra-Class Correlation(ICC)로 산출하였다. Cohen's Kappa를 이용하면 동일한 자료에 대해 평가자가 같은 평가를 했는지 측정하게 하였으며 Cohen's Kappa가 높으면, 1에 가까우면 같은 평가, 0에 가까우면 정반대의 평가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검정을 통해 대중매체에 나타난 대한민국 패럴림픽은 총 8,541건 중 7,943건이 일치하여 .93로 나타나 매우 높은 상관율을 보였다. 이 중 패럴림픽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2.4 자료 분석

1차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대한민국 패럴림픽 보도 자료를 8가지 대중매체로 구분하여 지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3가지 변인으로 분류하였으며 SPSS Version 20.0을 사용하여 장애유형별 변인에 따라 빈도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한민국 장애인스포츠의 초석인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을 기점으로 2018년 제12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최 전까지 패럴림픽의 기사를 대상으로 10년 단위 과거와 현재의 패럴림픽의 인식을 살펴보고 패럴림픽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패럴림픽 자료의 수집결과 총 8,541건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 되었으며 이에 따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대중매체에 나타난 대한민국 패럴림픽에 대한 분석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된 7,754건의 자료 중 각 대중매체에 나타난 분석은 Table 1과 같다. 또한, 10년 단위로 나타난 분석은 Table 2, 3, 4와 같다.

Table 1. Mass Media 1

Mass Media (8,541) 88.1.1 ~ 17.12.31	Daily newspaper	1,653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789
	Economy / IT	1,315
	Internet newspaper	806
	Sports / Entertainment	650
	Local area	1,054
	magazine	197
	Journal / Other	1,851

Table 2. Mass Media 2

Mass Media (34) 88.1.1 ~ 97.12.31	Daily newspaper	0
	Broadcasting / communication	34
	Economy / IT	0
	Internet newspaper	0
	Sports / Entertainment	0
	Local area	0
	magazine	0
	Journal / Other	0

Table 3. Mass Media 3

Mass Media (579) 98.1.1 ~ 07.12.31	Daily newspaper	139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56
	Economy / IT	81
	Internet newspaper	91
	Sports / Entertainment	8
	Local area	22
	magazine	31
	Journal / Other	7

Table 4. Mass Media 4

Mass Media (7,962) 08.1.1~17.12.31	Daily newspaper	708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633
	Economy / IT	1,234
	Internet newspaper	715
	Sports / Entertainment	642
	Local area	1,032
	magazine	166
	Journal / Other	1,844

1988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대한민국 패럴림픽 관련 자료는 총 8,541건이다. 이중 방송/통신 분야가 전체 보도 자료의 21%인 1,789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거진 분야가 2.3%의 순으로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대중매체가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으로 분석된다. 10년 단위로 분포를 살펴보면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을 기점으로 대중매체의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으며 2018년 제12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최가 다가올수록 대중매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중매체의 양적 증가는 대중매체 기관과 관련 종사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미세하나마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13]. 특히 방송/통신이라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패럴림픽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 또한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장애인과 패럴림픽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14].

3.2 장애유형별 대한민국 패럴림픽에 대한 분석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된 8,541건의 자료 중 대중매체에 나타난 장애유형별 분석은 Table 5와 같다. 또한, 10년 단위로 나타난 분석은 Table 6, 7, 8와 같다.

Table 5. Mass Media 5

Mass Media (8,541) 88.1.1~17.12.31	physical disability	309
	intellectual disability	763
	Visual disturbances	693

Table 6. Mass Media 6

Mass Media (8,541) 88.1.1~97.12.31	physical disability	4
	intellectual disability	0
	Visual disturbances	3

Table 7. Mass Media 7

Mass Media (8,541) 98.1.1~07.12.31	physical disability	35
	intellectual disability	1
	Visual disturbances	45

Table 8. Mass Media 8

Mass Media (8,541) 08.1.1~17.12.31	physical disability	253
	intellectual disability	754
	Visual disturbances	640

대중매체에 나타난 장애유형별 분석은 지적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보다 2배 이상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휠체어를 상징하는 신체적 장애인의 참여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의 장애유형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시적인 측면에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여 장애인을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15]. 보건복지부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약 251만 명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지체장애인은 약 127만 명으로 전체 5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16]. 이는 과거 지적장애인보다 지체 장애인들의 빈도와 출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신체적 장애인의 참여의 상징인 휠체어로 대표되었던 장애인의 이미지가 변화되는 계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 할 수 있다[17]. 이러한 변화는 매우 중요한 변화로서 과거에 비해 참여유형의 증가로 나타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생활체육 완전실행자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다고 하였다[18]. 이러한 결과는 Table 8의 결과와 같이 2008년부터 대중매체의 증가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한민국 패럴림픽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을 시작으로 2018년 제12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개최 전 까지를 중심으로 보도되는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과거와 현재 패럴림픽에 대해 살펴보고 패럴림픽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중매체에 나타난 패럴림픽에 대한 분석 결과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을 기점으로 대중매체의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으며 대중매체가 기존 한정된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됨을 알 수 있으며 많은 영역 중 방송, 통신 분야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 등의 발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준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매체에 나타난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가장 많이 보도되었으며 1988년부터 지체장애 국가대표 선수들의 메달 이후 선수층의 변화가 없이 패럴림픽의 지적장애 선수들의 종목 참여가 증가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매체 노출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의 여러 노출로 인해 대중매체에 다양하게 보도되고 그에 따른 양적인 증가를 가져왔다(16).

우리나라는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 이후 대중매체의 양적증가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패럴림픽은 장애인 체육진흥의 획기적인 촉매체로서 작용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공평한 기회 균등의 슬로건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중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요구도 점점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개인적 맞춤형요성과 욕구 증대에 따라 스포츠 활동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대중매체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시각적인 보도와 가사와의 조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는 자원봉사활동을 들 수 있

다. 즉, 장애인과 접촉을 하는데 있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 사고의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인 협회와 관련 단체는 그동안의 축제가 아닌 패럴림픽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중매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스포츠 전문채널을 신설함으로써 대중매체를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스포츠 활동을 널리 보급하여 미래의 장애인선수를 발굴하는 것이다. 넷째,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신규 결성 및 확대로 더 많은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쉽게 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장애 내용이나 정도를 고려한 새로운 게임이나 스포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끝으로 미래사회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회의 안정화 등의 인식과 관심의 증가로 사회의 소외집단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장애인스포츠를 위한 요구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인스포츠를 통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몸과 마음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함으로써 비장애인들이 패럴림픽을 장애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역경을 극복한 한 인간으로서의 열정과 한계를 뛰어넘은 올림픽으로 기억함으로써 전 국민적인 스포츠정신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로 인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ports Today. (2017). *2018 Pyeongchang Winter Paralympics Competition Torch, next March 2 Fire will emerge*. <http://sports.news.naver.com>
- [2] Korea Disabled Sports Association. (2012). *Paralympic Games*.
- [3] J. T. Kim & E. C. Seo. (2015). Content analysis of support system problems perceived by elite athlete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pecial Physical Education*, 23(3), 65-81.
DOI : 10.17006/kjapa.2015.23.3.65
- [4] H. K. Roh. (2006).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National Sports Games for the Disabled in Newspaper.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pecial Physical Education*. 14(3), 21-36.
- [5] K. Y. Nam. (2012). Discrimin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ipation in Sports Events. *Sports and*

lav. 15(3), 75-96.
DOI : 10.19051/kasel.2012.15.3.75

[6] S. G. Lee. (2003).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Sports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Recognition of Disabled Sports Activity. *Social Welfare Policy. 17*, 133-153.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2014 Survey on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8] C. F. Silva & P. D. Howe. (2012). The (in)validity of supercrip representation of Paralympian athletes.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s. 36(2)*, 174-194.

[9] Y. J. Choi & S. H. Kweon. (2014).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he Newspaper articles on Big data . *Cyber Communications Journal. 31(1)*, 241-286.

[10] R. M. Entman (1991). Framing U. 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11] S. M. Yoon & Ohara. (2012). An Analysis of Korean Newspaper Coverage of the 2012 London Paralympic Gam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1(6)*, 497-506.

[12] O. J. Schantz. & K. Gilbert. (2001). An ideal misconstrued: Newspaper coverage of the Atlanta Paralympic Games in France and Germany. *Sociology of Sport Journal. 18*, 69-94.
DOI : 10.1123/ssj.18.1.69

[13] D. W. Choi & S. M. Yoon. (2012). An Analysis of Korean Newspaper Coverage of the Paralympic Games: Center from 1988 to 2012. *Korea Special Physical Education. 20(4)*, 45-54.
DOI : 10.17006/kjapa.2012.20.4.45

[14] N. Thomas & A. Smith (2003). Preoccupied with able-bodiedness An analysis of the British media coverage of the 2000 Paralympic Game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20*, 166-181.
DOI : 10.1123/apaq.20.2.166

[15] Y. S. Yu. (2005). A Study on the Non-Disability People\'s Recognition on People with Disability-Focused on Non-Disability People in Jeju. *Korea Welfare for the Disabled, 3(3)*, 141-172.

[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Registered Disabled Persons.

[17] S. Y. Baek & B. D. Park. (2012).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the National Sports for the Disabled Persons: Focusing on the 31st National Sports for the Disabled Persons.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20(1)*, 97-110.

DOI : 10.17006/kjapa.2012.20.1.97

[1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2016 Survey on Participation in Sports for the Disabled.

이 창 희(Chang-Hee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졸업(체육학사)
- 2016년 2월 :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졸업(체육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스포츠심리, 특수체육
- E-Mail : world32001@hanyang.ac.kr

박 범 영(Young-Bum Park) [정회원]



- 1994년 2월 : 한양대학교(체육학사)
- 2000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체육학석사)
- 2004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체육학박사)

- 2005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심리, 골프
- E-Mail : hyby68@hanmail.net